

트와이스 나연 '빌보드 200' 7위
역대 K팝 솔로 최고 순위에 올라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첫 번째 솔로 미니음반 '아이 나연'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에서 솔로로 상승추고 있는 트와이스의 나연.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케이(K)팝 솔로 가수가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이다. 또 '톱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차트 정상에도 올랐다. 타이틀곡 '팝!'(POP!)의 뮤직비디오는 4일 오전 9시 기준 564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정연 기자



이민호 주연의 드라마 '상속자들'. 사진제공 | SBS

드라마 '상속자들' 남미서 인기

브라질·칠레 등 20개국서 상위권

이민호 주연의 2013년 SBS 드라마 '상속자들'이 다시 한번 한류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4일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론에 따르면 1일부터 HBO맥스에서 스트리밍 되고 있는 드라마 '상속자들'이 '많이 본 HBO맥스 시리즈 글로벌 순위'에서 3일 연속 9위를 차지했다. 케이(K)팝 등 케이콘텐츠의 인기가 뜨거운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된 드라마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등 20개 국가에서 5위권 안에 들었다.

'상속자들'은 부유층 고교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드라마로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25.6%를 기록했고, 특히 주연한 이민호와 박신혜는 이 드라마를 통해 최고의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페루의 주요 매체 '라 리퍼블리카'는 '상속자들'이 HBO맥스를 통해 남미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슈퍼스타 이민호와 박신혜의 로맨스를 보여주는 '상속자들'은 팬들을 기쁘게 만들 것"이라며 "극중 백만장자 이민호와 가정부의 딸 박신혜는 2013년 SBS 방영 당시 시청자의 눈물과 미소를 자아낸 것은 물론 시상식 시즌에도 가장 사랑 받은 캐릭터였다"고 소개했다.

HBO맥스 공개되자 이민호의 글로벌 팬들은 트위터를 통해 자발적 홍보에 나섰다. '상속자들'이 글로벌 차트에 랭크되자 해당 차트를 캡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HBO맥스의 남미지역 공식 계정은 이민호를 향한 팬들의 응원 트윗에 "이민호가 보증인이고 신이다"라는 답변까지 달았다.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방영됐던 드라마도 OTT를 통해 '재 한류'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과거 드라마를 글로벌 OTT를 통해 공개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BO맥스는 국내엔 정식 론칭 되지 않았으나 넷플릭스를 누르고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OTT 플랫폼이다. 북미를 비롯해 남미, 유럽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OTT 웨이브와 제휴를 맺어 하반기부터는 웨이브를 통해 독점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미니음반 '매니페스토' 발표한 엔하이픈

"역대급 퍼포먼스에 깜짝 놀랄 것"



그룹 엔하이픈이 데뷔 후 처음으로 랩과, 케이(K)팝에서는 흔치 않는 '시카고 드림'이라는 생소한 장르에 도전했다.

사진제공 | 빌리프랩

강렬한 음악...이전 앨범과 판판 '퓨처 퍼펙트' 등 색다른 장르 곡 코로나19로 데뷔 첫 팬들과 대면 엄청나게 설레...9월엔 월드투어

"우리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2020년 앨범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를 통해 데뷔한 엔하이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밀리언셀러(113만 장)를 기록했다.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인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국내외에서는 "글로벌 라이징 케이(K)팝스타"라고 주목했다. 여기에 5월 일본에서 선보인 싱글 음반으로는 일본 레코드 협회가 수여하는 골디스크 "더블 플래티넘"(50만 장) 인증까지 받았다.

엔하이픈은 "이런 관심과 성공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뤄지거나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안다"면서 "새 앨범을 내놓을 때마다 새롭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 이번에도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잘 증명하는 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다부진 각오를 담아 4일 오후 세 번째 미니음반 '매니페스토 :데이 1'(MANIFESTO :DAY 1)을 발표했다. 엔하이픈은 이날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층 성장하고 강렬해진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다. 퍼포먼스하면 역시 엔하이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매니페스토 :데이 1'은 어른들이 정의한 '성공'에 의구심을 품게 된 멤버들이 '타인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스토리를 담았다. 방시혁 대표 프로듀서를 비롯해 원더키드(Wonderkid) 등 하이브 레이블즈 사단이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타이틀곡 '퓨처 퍼펙트'(Future Perfect), '워크 더 라인'(WALK THE LINE), 어른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올드스쿨 힙합 '파러독스 인베이전'(Paradox XX Invasion), 초여름에 잘 어울리는 소프트 팝 록 'TFW', 멤버 제이크가 작사에 참여한 얼터너티브 록 '샤우트 아웃'(SHOUT OUT) 등이 수록됐다.

"타이틀곡은 '시카고 드림'이라는 케이팝에서는 흔치 않은 장르의 곡이예요. 생소한 장르라 더 신선할 수 있

요. 또 데뷔 후 처음으로 랩에 도전하면서 우리 모두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었죠. 여러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실력도 더욱 단단해졌다고 할게요."

'퓨처 퍼펙트'는 멤버들이 또래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 테니 함께 가자"고 선언하는 곡이다. 또 그동안 발표한 타이틀곡 가운데 처음으로 제목에 '하이픈'(-)이 빠졌다.

이들은 "우리 세대의 생각을 세상에 당당히 선언하는 느낌으로 가고 싶었고, 하이픈에 한정 짓지 않고 연결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한 포부를 표현했다"고 욕심을 드러냈다.

엔하이픈은 공교롭게도 세계적으로 감염증 확산 사태 중 데뷔해 오프라인으로 팬들과 만나지 못했다. 이번 앨범 활동으로 각 방송 음악프로그램에서 처음 팬들과 현장에서 만난다.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최근 독일에서 진행한 케이팝 무대를 통해 처음 해외 팬들과 만났는데, 그 감동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엔진(엔진)' 분들과 만나는 거예요. 9월 월드투어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한 것들을 모두 쏟아 부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베테랑 '男-男 콤비'가 온다

차태현·정용화 수사드라마 호흡
손현주·장승조 '모범형사2' 콕백
고수·허준호 '미씽2' 촬영 돌입

'남남(男·男) 콤비'가 안방극장을 정조준한다. 손현주·장승조, 차태현·정용화 등이 수사드라마를 비롯해 장르물에 도전한다.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 대신 두 남성 주인공의 팀워크를 전면에 내세워 독특한 재미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손현주와 장승조는 30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JTBC '모범형사2'를 통해 다시 한번 콤비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2020년 시즌1에 이어 인천서부경찰서 강력2팀 형사를 연기한다. 시즌1은 호탕한 손현주와 시니컬한 장승조가 파트너로서 적응해가는 과정이 핵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들이 쫓아온 호흡을 발판삼아 각종 사건을 해결해가는 데 집중한다.

시즌1 방영 당시 7.6%(닐슨코리아)의

최고시청률을 끌어올린 이들은 일찌감치 시즌2 제작을 확정하고 5월 촬영을 모두 마쳤다.

차태현과 정용화도 수사드라마로 뭉친다. 이들은 내년 초 방영을 목표로 준비 중인 KBS 2TV 새 드라마 '두뇌공조'에 출연한다. 두 사람은 경찰 선배배로 호흡하면서 범죄자들과 치열한 두뇌싸움을 통해 성장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그린다.

권상우와 김희원은 내년 공개 예정인 새 드라마 '한강'(가제)의 출연을 제안 받고 세 부 사향을 논의하고 있다. 4월 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한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해결하는 한강경찰대의 이야기를 펼친다. 제작진은 안방극장에서는 다소 낮은 한강경찰 소재를 친근하게 전하기 위해 대중에 친숙한 베테랑 스타들로 주연 라인업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와 허준호는 오컬트 요소가 섞인 장르드라마로 콤비의 힘을 발휘한다. 10월 방영하는 tvN '미씽2'로 실종된 망자들이



'브로맨스의 힘' 남성적인 매력과 진한 우정 등을 그린 드라마가 잇달아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손현주·장승조 주연의 '모범형사2'와 고수·허준호의 '미씽2'(사진 위쪽부터).

사진제공 | JTBC-TV

모인 영혼 마을의 비밀을 풀어낸다. 2020년 시즌1을 통해 독특한 장르드라마라는 호평을 이끌어내면서 시즌제로 확장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스포츠동아 2022년 7월 5일 화요일 11



홍석천, 신동엽, 하니가 진행하는 '메리 퀴어'. 사진제공 | 웨이브

그들 속의 '퀴어', 세상 속으로

'메리 퀴어' '남의 연애' 등 채비
"새로운 시도" 속 "반발 클 것"

방송가에서 퀴어(성소수자) 소재가 더욱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다뤄지면서 시청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BL(Boy's Love·남성 동성애 코드)의 로맨스물 장르가 방송가 트렌드로 떠오른 데 이어 예능 분야에서도 관련 소재를 전면에 내세우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퀴어 소재를 하위문화로 여기고 다루기 꺼려온 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BL 장르는 OTT를 통해 탄탄한 마니아층을 확보하면서 최근 방송가의 '스타 등용문'으로 꼽히고 있다. 그룹 DKZ의 멤버 재찬이 왓츠 BL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주연해 스타덤에 오른 이후 많은 아이돌 멤버와 신인들이 BL드라마 오디션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데뷔 11년 차인 B1A4 공찬 등 경험 많은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도 BL드라마 주연으로 나선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8일 OTT 웨이브가 세 쌍의 LGB T(성소수자) 커플의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콘텐츠 '메리 퀴어'를 선보인다. 또 남성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애 예능 콘텐츠 '남의 연애'도 막바지 작업 중이다. 예능 콘텐츠가 퀴어 소재를 내세운 것은 처음이다.

임창혁 웨이브 국내 편성사업부 책임매니저는 4일 "성소수자들의 일상과 현실을 극화하지 않고 리얼리티 포맷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는 편이 공문화와 공감을 더욱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가 이미 성소수자를 평범한 이웃으로 표현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방송가 안팎의 변화를 짚었다.

이는 "단순하게 BL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서구에 비해 보수적이어서 당분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시청자의 거부감이 나 고정관념을 약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응원과 편견,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임 매니저는 "출연자들이 깊은 고심 끝에 출연을 결정했다"면서 "성소수자를 향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그룹 T1419 멕시코 출국...남미 본격 진출



그룹 T1419(티일사일구)가 남미에 진출한다. 4일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T1419는 5일 멕시코로 출국해 멕시코시티를 시작으로 남미 전역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멕시코 공중파 방송 출연을 비롯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버스킹, 콘텐츠 촬영 등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한다. 이들은 3일 신곡 '웬 더 선 고즈 다운'(When the sun goes down)을 발표했다. 기존 한국어 곡을 스페인어 버전으로 옮긴 게 아닌 처음부터 남미 팬들을 겨냥해 스페인어로만 발매한 노래여서 국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뮤지컬로 재탄생

배우 손예진·현빈 부부가 2020년 주연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4일 제작사 팜뮤직과 T2N미디어에 따르면 드라마 원작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을 9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공연한다. 2020년 방영한 드라마는 손예진과 현빈이 각각 재벌 상속녀와 북한 장교군을 연기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두 배우는 실제로 드라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결혼에 골인했다. 뮤지컬은 연출 박지혜, 대본 박혜림 등이 제작진으로 참여한다.